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0, Vol. 29, No. 4, 1135-1143

〈Brief Report〉

자기애자의 자기관련 정보에 대한 지각적 민감성*

한 수 정†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Wisconsin-Stout

권 석 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 특성, 즉 웅대성과 취약성을 모두 보이는 자기애자들이 긍정적 부정적 자기관련 정보에 대해 지각적 정보처리 수준에서 민감성을 보이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대학생 403명에게 자기애적 성격장애 척도를 실시하여 점수에 따라 상, 중, 하 집단 각 13명을 대상으로 범주판단과제를 시행하였다. 결과 자기애자들은 부정적 자기관련 형용사가 방해자극으로 제시될 때 긍정적 혹은 중성적 형용사 조건에서보다 범주판단이 오래 걸렸다. 이는 부정적 자기관련 자극에 자기애자들이 지각적으로 민감함을 의미하였다.

주요어 : 자기애, 자기애적 민감성, 범주판단과제

---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자료 일부를 사용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한수정/ University of Wisconsin-Stout/ 712 South Broadway St, Menomonie, WI 54751, USA
Fax : +1-715-232-5303 / E-mail : hansu@uwstout.edu

www.kci.go.kr

자기애적 성격의 핵심 특징 가운데 하나는 외현적 내현적 유형(강선희, 정남운, 2002; Wink, 1991)에 관계없이 타인의 비판이나 평가에 대한 민감성이다(Akhtar & Thompson, 1982; Atlas & Them, 2008). 외현적 자기애자들(overt narcissists)은 스스로를 대단하고 특별하다고 과대평가하는 등 명시적(explicit) 수준에서의 자존감이 높고, 자신이 타인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식적으로는 부인한다(Atlas & Them, 2008). 하지만 이 높은 자존감은 방어적으로 고양된 불안정한 것으로, 실제로는 자아가 취약하여 외부 평가에 민감함을 보인다(Bosson et al., 2008; Reich,1960; Kernberg, 1975). 경험적 연구 결과 사회인지적 실험 상황 등에서 자신의 능력 등에 대해 부정적 피드백을 받을 경우 외현적 자기애자들은 분노 반응을 보이거나(예: Rhodewalt & Morf, 1998),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인지적 정서적 민감성을 보인다(예: Kernis & Sun, 1994). 자기애자들은 부정적 평가 뿐 아니라 긍정적 평가에도 민감하다. 왜냐하면 이들의 웅대한 자기상은 안정적이고 높은 자존감과 달리, 끊임없이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해주어야 하는 불안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애자들은 자존감 조절과정 특히 자존감 고양과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한다(Morf & Rhodewalt, 2001). 즉 타인의 인정이나 존경을 갈구하고, 긍정적인 정보가 있으면 예민하게 파악하여 자존감을 높이는데 계속해서 사용해야 불안정한 자존감이 유지되는 것이다. 자기애자들이 긍정적 사건에 대해 자기봉사적 귀인편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Farwell & Wohlwend Lloyd, 1998; Hartouni, 1992; Ladd, Welsh, Vitulli, Labbe, & Law, 1997; Rhodewalt & Morf, 1995) 이러한 긍정적 자기관련 정보에 대한 민감성의 간접적 지표라 할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그 정의적 특성이 타인의 비판이나 반응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이다(강선희, 정남운, 2002; Atlas & Them, 2008; Hendin & Cheek, 1997; Wink, 1991). 이들이 보이는 민감성과 취약성은 타인의 반응이 기저의 웅대한 자기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Akhtar & Thompson, 1982; Kohut, 1977). 그러나 이들이 칭찬 등 긍정적 정보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정리하면, 외현적 자기애자들은 부정적 평가에 대해 의식적으로는 민감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비의식적 수준에서 인지적 정서적 민감성을 보이고,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의식적 수준에서 민감함과 취약성을 자각한다. 외현적 자기애자들은 긍정적 평가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등 자기관련 긍정적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내현적 자기애들의 긍정적 정보에 대한 예민성은 충분히 알려진 바가 없다.

이 같은 자기애자의 민감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자기보고 연구이거나, 사회인지적 실험상황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피드백을 조작하거나, 귀인 시나리오 등을 제시한 후 자기애자들의 반응을 살펴본 것이 대부분이었다(Besser & Ziegler Hill, 2010; Farwell & Wohlwend Lloyd, 1998; Hartouni, 1992; Kernis & Sun, 1994; Ladd, Welsh, Vitulli, Labbe, & Law, 1997; Morf & Rhodewalt, 1993; Rhodewalt & Morf, 1995, 1998). 자기보고 연구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지각이 왜곡을 낳을 수 있고, 사회인지 실험 상황에서는 실험자의 요구 특성(demand characteristics)이 개입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적 특

www.kci.go.kr

성을 모두 가진 혼재유형이 부정적 피드백 혹은 긍정적 평가에 어떠한 민감성을 보이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의식적 수준의 민감성에 있어 상반되는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의 양상이 공존할 경우(강은영, 이영호, 2006)의 민감성과 취약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적 특성, 즉 웅대성과 취약성 모두를 보이는 자기애자들을 대상으로, 자존감 고양에 필요한 긍정적인 자기관련 정보와, 자존감에 위협이 되는 부정적 자기관련 정보에 대한 민감성을 초기 정보처리 수준에서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즉 비판이나 피드백, 혹은 성공 경험이 의식적 수준에서 주어질 때 보이는 반응적 민감성이 아닌, 초기 지각 단계에서의 자기관련 정보에 대한 민감성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자들이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자기관련 자극에 대해 지각적 민감성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지각적 민감성은 범주판단과제 수행 반응시간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았다: 자기애자들이 범주판단과제 수행시 긍정적 부정적 형용사 조건에서 중성 형용사 조건보다 범주판단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다; 비자기애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소재 한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 403명(남 291명, 여 112명)에게 자기애적 성격장애 척도(황순택, 1995)를 실시하였다. 그 가운데 이 척도에서 상위 9% 점수범위에 해당하는 13명, 평균점수를 얻은 13명, 하위 9%를 얻은 13명을 각각 선발하여 자기애적 성격 상, 중, 하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남녀 비율은 상집단 11:2, 중집단 7:6, 하집단 6:7 이었다. 평균연령은 상집단 20.5세, 중집단 21.5세, 하집단 20.9세였다. 피험자들을 척도 점수에 따라 선정하여 개별 연락을 통해 실험 참가에 동의를 구하였다. 피험자들에게는 실험 참가 점수 또는 다른 심리학 실험 참가의무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측정도구

자기애적 성격장애척도

황순택(1995)이 DSM Ⅳ(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진단준거에 근거하여 개발한 성격장애 자기보고 척도 가운데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이 척도는 자기애적 웅대성과 취약성을 함께 측정하여,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적 요소를 모두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고유한 특성과 성격장애 일반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공유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이 자신을 기술하는 정도에 따라 4점 척도에서 평정토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평가를 위해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범위는 18점에서 126점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자기애적 성격특성을 더 많이 가진 것을 의미하였다. 내적 합치도는 황순택의 연구에서는 .68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실험도구

www.kci.go.kr

범주판단과제

컴퓨터 모니터에 방해자극인 자기관련 및 중성 형용사와 표적자극인 명사(의복 혹은 읽을 거리) 를 500msec동안 나란히 제시하고, 방해자극인 형용사는 무시하고 표적자극인 명사가 특정 두 범주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명사가 속하는 두 범주를 의복과 읽을 거리 범주로 하고, 형용사는 긍정적 자기관련 형용사, 부정적 자기관련 형용사, 그리고 중성적 형용사로 선별하였다. 즉, 형용사의 내용과 무관하게 형용사를 무시하고, 명사가 의복과 읽을 거리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의복일 경우 왼쪽 shift 단추를, 읽을 거리일 경우 오른쪽 shift 단추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누르는 것이 과제이다. 만약 자기애자들이 지각적으로 자기관련 정보에 민감하다면, 무시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부정적 자기관련 형용사에는 주의가 할당되고, 따라서 명사의 범주판단에 걸리는 시간이 중성적 형용사가 제시되었을 때보다 길어질 것이다.

범주판단과제에 사용된 자극재료

표적자극은 본보기 산출빈도(이관용, 1991)가 유사한 의복범주에 속하는 명사(예: 치마, 셔츠 등)와 읽을 거리 범주에 속하는 명사(예: 소설, 수필 등)를 54개씩 선정하고 어휘빈도 사전(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을 통해 빈도와 글자수를 맞추었다. 방해자극은 긍정적 자기관련 형용사(예: 똑똑한, 멋있는), 부정적 자기관련 형용사(예: 열등한, 무식한), 중성적 형용사(예: 동그란, 얇은) 각 36개였다.

방해자극 형용사 선정방법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 25명에게 긍정적 자기관련 형용사, 부정적 자기관련 형용사, 중성 형용사 각 범주에 전형적이라고 생각되는 형용사를 자유롭게 산출하도록 하고, 이에 기존의 형용사 목록에 제시된 형용사들을 더하여 형용사 풀을 구성하였다. 그런 다음 임상 상담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 18명이 각 형용사가 위의 세 범주에 얼마나 전형적인지를 7점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전형성 평정치 평균이 5점 이상인 형용사를 선정하여 빈도와 글자수, 평정치를 맞추고 각 조건범주별로 36개씩을 최정 선정하였다.

절차 및 자료분석

자기애적 성격장애 척도 점수에 따라 피험자를 전화로 섭외하고 실험참가에 동의를 구하였다. 동의한 피험자가 실험실에 오면 컴퓨터 모니터에 제시된 범주판단과제에 대한 지시사항을 읽고 연습시행 20회, 본 시행 108회를 수행하였다. 소요시간은 약 8분 정도였다. 실험이 끝나면 연구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해 주었다. 본 실험은 3X(3) 설계로, 피험자간 변인은 자기애 상, 중, 하 집단, 피험자 내 변인은 긍정적 자기관련 형용사, 부정적 자기관련 형용사, 그리고 중성적 형용사 조건이었다. 범주판단 시간을 종속변인으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각 집단별 형용사 조건간 쌍별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www.kci.go.kr

변량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즉 자기애자들은 부정적 형용사 조건에서 중성 형용사 조건보다 범주판단 시간이 유의미하게 길게 나타났지만, 긍정적 형용사 조건과 중성 형용사 조건간에는 범주판단 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변량분석에서 형용사 조건과 집단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4, 72)=3.69$, $p<.01$. 즉, 각 집단마다 형용사 조건간 범주판단 시간의 차이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 중, 상 하, 중 하 집단간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상 중, 상 하 집단간에서 집단 및 형용사 조건간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F(1,48)=4.52$, $p<.05$, $F(1,48)=5.38$, $p<.01$. 유의미한 상호작용의 원천과 차이 양상을 규명하기 위해 집단별 범주판단 시간에 대한 형용사 조건간 쌍별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1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결과

자기애 상집단에서는 부정적 자기관련 형용사 조건이 긍정적 자기관련 형용사 조건과 중성 형용사 조건에서보다 범주판단시간이 유의미하게 더 오래 걸렸다, $t=2.27$, $p<.05$, $t=3.08$, $p<.01$. 긍정 형용사와 중성 형용사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자기애 중집단에서는 긍정 형용사 조건 범주판단 시간이 부정 형용사와 중성 형용사 조건보다 유의미하게 덜 걸렸다, $t=2.69$, $p<.05$, $t=2.95$, $p<.05$. 자기애 하집단에서는 세 형용사 조건간 범주판단 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요약하면, 자기애 상집단은 부정적 자기관련 정보에 지각적 민감성을 보였으나 긍정적 자기관련 정보에는 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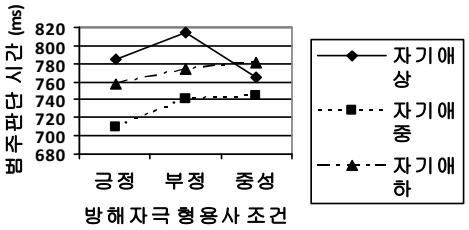

그림 1. 범주판단 시간 양상

표 1. 범주판단 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

	긍정적 자기관련 형용사	부정적 자기관련 형용사	중성적 형용사
자기애적 성격상집단	785 (27)[a]	814 (30)[b]	765 (22)[a]
자기애적 성격중집단	710 (25)[c]	741 (25)[d]	745 (30)[d]
자기애적 성격하집단	758 (31)	774 (34)	781 (40)

단위는 msec 임

평균(표준편차)

a<b, $p<.01$; c<d, $p<.05$

www.kci.go.kr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웅대성과 취약성을 모두 보이는, 즉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적 특성을 함께 가진 자기애자들이 지각적 수준에서 자기관련 정보에 대한 민감성을 보이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범주판단 과제를 실시하여, 방해자극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자기관련 형용사일 때 이 자극에 주의가 할당되어 범주판단 시간이 길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자기애적 특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긍정적 자기관련 형용사 및 중성적 형용사에 비해 부정적 자기관련 형용사가 방해자극으로 제시될 때의 범주판단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이는 자기애자들이 부정적 자기관련 정보에 주의자원을 빼앗기며, 따라서 부정적 자기관련 정보에 민감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 자기관련 정보에는 이러한 지각적 민감성이 시사되지 않았다. 이는 지각적 정보처리 수준에서는 부정적 정보에 대한 민감성만이 나타나며, 부정적 정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방어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취약성이, 긍정적 정보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자기고양에 사용하려는 동기보다 좀 더 근본적임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기애적 특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이러한 형용사 조건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이러한 지각적 민감성이 자기애자들의 특성임을 지지하였다.

자기애에 관한 여러 고전적 임상이론들은 자기애자의 웅대성을 기저의 취약한 자기상에 대한 방어의 산물로 설명해왔고(Reich, 1960; Kernberg, 1975), 이는 현재까지도 자기애에 관한 많은 경험적 연구와 이론적 개념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Bosson et al., 2008; Gregg & Sedikides, 2010). 자기애자의 취약한 자기상에 대한 중요한 경험적 지표로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민감성이활발히 연구되어 왔다(예: Atlas & Them, 2008; Besser & Ziegler Hill, 2010; Morf & Rhodewalt, 1995, 1998). 본 연구는 자기애자의 지각적 수준에서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민감성의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관되며 따라서 자기애자의 취약한 자기상 이론을 지지한다. 이에 더하여 기존의 자기보고 혹은 부정적 평가를 조작한 사회인지 실험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범주판단과제 수행을 통해, 의식적 수준에서 부정적 평가가 인식되지 않는 초기 정보처리의 지각적 수준에서도 부정적 자기관련 정보에 대한 민감성이 존재함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애적 특성이 중간 정도인 집단에서 긍정 형용사 조건에서 범주판단 시간이 짧게 나타난 것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고, 이를 밝히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 모두를 보이는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외현적 자기애만 보이는 집단, 내현적 자기애만 보이는 집단의 지각적 민감성에 대한 추후 연구를 통해 부정적 정보에 대한 지각적 민감성이 모든 유형의 자기애 집단에 존재하는 취약성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www.kci.go.kr

강은영, 이영호 (2006). 이차원 자기애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자기주도적 자기애 및 타인의존적 자기애와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2), 397-415.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내부보고서.

이관용 (1991). 우리말 범주규준 조사.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3, 131-160.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Akhtar, S., & Thompson,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 revised).* Washington, DC: Author.

Atlas, G. D., & Them, M. A. (2008). Narcissism and sensitivity to criticism: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urrent Psychology, 27,* 62 76.

Besser, A., & Zeigler Hill, V. (2010). The influence of pathological narcissism on emotional and motivational responses to negative events: The roles of visibility and concern about humili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 520-534.

Bosson, J. K., Lakey, C. E., Campbell, W. K., Zeigler Hill, V., Jordan, C. H., & Kernis, M. H. (2008). Untangling the links between narcissism and self esteem: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 1415-1439.

Farwell, L., & Wohlwend Lloyd, R. (1998). Narcissistic processes: Optimistic expectations, favorable self evaluations, and self enhancing attributions. Journal of Personality, 66(1), 64 83.

Gregg, A. P., & Sedikides, C. (2010). Narcissistic fragility: Rethinking its links to explicit and implicit self esteem. *Self and Identity, 9,* 142 161.

Hartouni, Z. S. (1992). Effect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organization on causal attributions. Psychological Reports, 71, 1339-1346.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599.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Kernis, M. H., & Sun, C. R. (1994). Narcissism and reactions to interpersonal feedback.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 4 13.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Ladd, E. R., Welsh, M. C., Vitulli, W. F., Labbe, E. E., & Law, J. G. (1997). Narcissism and causal attribution. Psychological Reports, 80, 171-178.

Morf, C. C., & Rhodewalt, F. (2001). Unraveling the paradoxes of narcissism: A dynamic self-regulatory processing model. Psychological Inquiry, 12(4), 177-196.

Reich, W. (1960). Pathological forms of self esteem regulation.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15, 215 232.

Rhodewalt, F., & Morf, C. C. (1995). Self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 review and new

www.kci.go.kr

finding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 1-23.

Rhodewalt, F., & Morf, C. C. (1998). On self-aggrandizement and anger: A temporal analysis of narcissism and affective reaction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672-685.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원고접수일 : 2010. 8. 1.
1차 수정원고접수일 : 2010. 8. 17.
게재결정일 : 2010. 8. 23.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0, Vol. 29, No. 4, 1135-1143

〈Brief Report〉

Perceptual Sensitivity of Narcissists to Self-Relevant Information

Suejung Han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Wisconsin-Stout

Seok-Man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ual sensitivity to positive and negative self-relevant information in narcissists who demonstrated both overt (i.e., grandiosity) and covert (i.e., fragility) narcissistic tendencies. Four hundred and three Korean undergraduates completed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 Hwang, 1995). Thirteen students who scored high, average, and low on the NPDS were recruited as high narcissists, average, and low narcissists, respectively. The 39 participants performed a category judgment task that required them to categorize either clothing or reading material related to a noun which was presented for 500 msec on the computer screen, while ignoring a simultaneously presented adjective. The distracting adjectives were either positive self relevant, negative self relevant, or neutral. Results indicated that high narcissists exhibited extended category judgment time when negative self-relevant adjectives were presented as distracters. This indicated narcissists' attention was captured by negative adjectives, thereby demonstrating perceptual sensitivity to negative self-relevant information in narcissists.

Key words : Narcissism, narcissistic hypersensitivity, category judgment task

www.kci.go.kr